

설난영 여사의 국정농단 예비훈련

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의 권력 사유화 인식이 우려됩니다. 제2의 김건희가 우려됩니다.

상대후보 측을 맹비난 하고 있는 설 여사는, 정작 자신은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

지난 달 30일 설 여사는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“남편한테 보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가 했다” 고 말했습니다. 도정 사무에 관한 엄연한 공식 라인이 있음에도 비선실세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.

설 여사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“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있으면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기록을 남편에게 전달했다” 면서 “그것이 도정 개입이고 예산 편성 개입인가” 라고 반문했습니다.

당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민간인 신분인 배우자가 평가 기록을 왜 쓰는 것이며,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월권행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월권행위입니까.

또 “영부인이 된다면 민심을 살피는 일을 하고 싶다” 면서 앞으로도 비선 행세를 계속할 의향까지 드러냈습니다.

설 여사를 보면 정부 기관을 종횡무진 혼자 다니며, ‘당부’, ‘조치’, ‘개선’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놀이를 하던 김건희 여사가 떠오릅니다. 김 여사가 하면 국정 개입이고, 설 여사가 하면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는 논리가 대체 무슨 논리라는 말씀입니까. 국정농단 예비훈련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.

박근혜 정권의 최순실,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는 모두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두 정권은 모두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왔습니다.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또 다른 ‘김건희’의 등장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

2025년 5월 23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